

캘리포니아 해변 뒤덮은 한국인들의 진미



▲ 캘리포니아주 드레이크 해변을 뒤덮은 개불 © BBC

캘리포니아의 드레이크 해변(Drake Beach,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37마일 북쪽에 위치)이 한 해변이 최근 갑작스럽게 밀려든 ‘개불’로 뒤덮였다.

13일 영국 BBC월드뉴스는 온라인 뉴스를 통해 “남근을 닮은 수천 마리의 생물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드레이크스 해변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 생물에 대해 “주모벌레(Fat innkeeper worm) 혹은 개불(Penis fish)이라고 불린다.”라고 설명하며 개불을 ‘한국의 대표음식’이라고 소개했다. BBC는 “개불은 상어, 수달 등의 먹이지만 사람들도 먹는다.”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진미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개불이 한국에선 횡감으로 쓰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개불을 터부시한다. 당연히 식용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생김새가 영악없이 남근을 닮은 때문이다. 그래서 개불은 영어로 ‘페니스 피시(Penis fish)’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개불은 보통 모래 속 깊은 구멍을 파고 살지만, 최근 일어난 폭풍으로 인해 드래그 해변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했다.

해변을덮은개불의 모습을본사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한 누리꾼은 “수천 개의 분홍색 소시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으나 다른 누리꾼은 “모래벼룩보다 더 싫다.”며 질색을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누리꾼들은 “조장 싸 들고 당장 달려가고 싶다.”, “다음엔 부산 해운대로 밀려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상반된 반응을 보여 재미를 자아내고 있다.

LA한국교육원에 ‘미니 한국 역사관’ 조성된다

복제 훈민정음 영인본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 유물 전시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 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에 ‘미니 한국 역사관’ 생긴다

총 공사비 12만 달러를 들여 LA한국교육원 건물 로비에 조성중인 ‘미니 한국 역사관’은 고조선부터 현대사까지의 한국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모두 12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지며 내년 1월 중순 완공할 예정이다.

각 전시관에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당시의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시대별 대표 유물도 전시한다. 전시될 유물들은 한국에서 구입했거나 기증받은 것들로 청동검, 신라 금관 장식품,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화로, 직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 원형을 복제한 훈민정음 영인본도 전시할 예정이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역사와 우수성을 확인할



▲ 내년 1월 완공 예정인 ‘미니 한국 역사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LA한국교육원 로비 모습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걸 원장은 “한국교육원은 평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추려 소개하기 위해 역사관 조성에 나섰다.”며 “특히 미주 한인의 역사도 소개해 2세와 3세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거주 한인 인구수 184만2천여 명

LA시 11만 7천여 명으로 최다 ... 영어 구사력은 평균 이하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수는 총 184만2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방센서스국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단위의 인구 현황을 종합 추산해 발표한 ‘2014-2018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ACS)’에 따르면 미 전역의 한인 인구는 비혼혈 한인은 145만5,845명, 혼혈 한인은 38만6,417명으로 집계됐다.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로 약 5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어 뉴욕주, 뉴저지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일리노이주, 조지아주 순으로 한인 인구가 많았다.

남가주의 경우 LA시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혼혈

포함)가 116,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어바인(24,392명), 풀러턴(17,176명), 토렌스(11,091명), 부에나파크(9,556명), 글렌데일(8,949명) 등이 따랐다. 그 외 애너하임(7,767명), 세리토스(6,666명), 사이프러스(6,043명), 다이아몬드바(5,829명)등이 남가주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10개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타운 표석이 있는 가든그로브는 4,710명으로 11위를 차지했다.

한편 남가주에 거주하는 5세 이상 한인들의 영어 구사력은 미국 전체 한인들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LA시 거주 한인들의 경우 영어를 매우 잘하는 것으로 조사된 한인은 37.1%였으며 LA 카운티에는 40.0%, 오렌지카운티 42.9%로 미국 전체 46.7%에 비해 낮았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0)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